

## 성 역할 지각의 발달: 범주 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김태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지각에서 범주 주도적 지각과 특성 주도적 지각 간의 발달적 관계를 밝혀려 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은 타인에 대한 지각이 발달 수준에 따라서 범주 주도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생들이 고정관념적인 남성, 여성 및 비고정관념적인 남성, 여성의 인상을 기능성과 친화성 차원에서 각각 판단하게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타인에 대하여 아동은 성 범주에 의존하여 인상을 형성하는 반면 성인은 개인적 특성에 의존하여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의 발달이 조망의 축소나 확대와 관련 있다고 보고 남녀의 인상판단에서 기능성과 친화성 가치를 모두 수용해 조망이 확대되었을 때는 그 반대이거나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선호하여 조망이 축소되는 경우에 비하여 개인적인 특성 정보를 더욱 사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인들에게 남성과 여성 가치가 서로 갈등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기능성 및 친화성 차원에서 판단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확대조망, 단일조망, 무조망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확대조망 집단이 단일조망이나 무조망 집단에 비하여 개인적 특성 정보를 인상판단에 더 활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연구 1에서 범주 정보의 사용에 따른 연령별 차이가 기능성 차원의 판단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구 2에서는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도에서 조망수준별 차이가 친화성 차원의 판단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성역할 지각 발달과정에 기초하여 논의하였다.

최근에 대인지각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지금까지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들이 인상정보처리의 서로 다른 두 과정 즉, 범주 주도적 처리(category-based processing)와 특성 주도적 처리(attribute-based processing)를 분리하여 연구해왔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려 시도해왔다(Brewer, 1988, Fiske & Neuberg, 1988). 그들은

사람들이 인상을 형성할 때 타인을 사회적 범주에 기초하여 표상할수도, 혹은 개인적 특성에 기초하여 표상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예컨대, 'X는 여자'라는 정보가 있을 때, X를 범주로서 표상할 때는 그는 단지 '여자의 일원'으로 지각되지만, X를 개인으로서 표상할 때는 '여자는 X의 특성 중의 하나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즉, 전자에서 개인은 사회적 범주에 의해 지각되지만 후자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지각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범주에 기초한 정보처리가 개인 특성에 기초한 처리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즉, 범주 주도적 지각은 자동적인 과정인데 비하여 특성 주도적 지각은 더욱 정교화된 정보처리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선행하여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고 고정관념적이거나 지각적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편 개인의 지각이 범주 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변화되는 요인들로는 지각자와 대상인물간의 관여(Brewer, 1988), 그 둘 간의 결과 의존성 혹은 지각자의 동기(Fiske & Neuberg, 1988), 그리고 지각자와 대상인물간의 친밀성(Sherman, 1988)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지각수준이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황적 조건에 따라서 범주 주도적지각에서 특성 주도적지각으로 변화할 수도, 특성 주도적지각에서 범주 주도적지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들이다.

최근에 Martin(1989)은 어린 아동의 경우 다른 남녀 아동에 대한 인상평가에서 개인적 특성 정보보다는 성 범주 정보에 더 의존하여 판단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iernat(1991) 역시 유치원, 3학년, 7학년, 10학년, 대학생의 표집에서 남녀에 대한 인상판단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성 범주 정보 보다는 개인적 특성 정보에 더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지각수준이 범주 주도적에서 특성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이유가 상황적 조건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성격특성과 같은 특성개념 형성의 결과로 인한 발달적인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성인에게서 인상정보처리

의 수준이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는 최근 대인지각에서의 실험 결과들을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찌기 Vygotsky(1978)는 발달과정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은 해석화된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들을 발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려 하였다.

그러면 왜 성인과 아동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성인과 아동이 남녀를 바라보는 조망의 수준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조망이란 지각대상을 해석하는 배경 또는 도식이 된다(Hundeide, 1985). 성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도식 이론가들에 따르면 남자들은 기능성 도식을 가지는 반면 여자들은 친화성 도식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남성은 '기능적' 가치를 선호하게 되는 반면 여성은 '친화적' 가치를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Liben & Signorella, 1987; Martin & Halverson, 1981). 그들은 이것이 성 역할 습득 과정에서 아동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애를 갖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런데 한 쪽 가치만을 가지고 타인을 지각할 때 개인의 조망은 축소되고 인상판단도 그 가치에 의해 구속되기 때문에 고정관념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김태준 등(1994)은 남녀에 대한 인상판단에서 이러한 효과를 조작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성 범주화 조작을 통하여 기능성이나 친화성 가치 중 한쪽 가치만을 선호하도록 피험자들의 조망을 축소시킨 범주화 조건에서는 통제 조건보다 성 고정관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수원(1991)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조망에 구속되어 있을 때는 '사회적 자아중심성'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자아중심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개인적 정체 보다는 사회적 정체로 규정할 뿐 아니라 타인 역시 개인적 정체보다는 사회적 정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Piaget가 물리적 지각에서 전 조작기 아동의 정신상태라고 보았던 자아중심적 사고와 그 성질이 같은 일종의 '투사'현상이다. 사회적 자아중심성 상태에서 개인은 물리적인 위치나 입장에 의해 사고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의해 사고가 구속된다. 이 점이 물리적 지각에서의 자아중심성과는 다르다. 여기서 타인을 사회적 정체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범주 성원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을 사회적 정체로 규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상은 '역할백락화'된다. 즉, 이때는 타인의 역할에서 오는 특성을 마치 개인의 성격인 것 처럼 지각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해경과 이수원(1994)은 남녀 성범주화를 통하여 내집단 편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즉, 범주화되었을 때 남성들은 내집단인 남자는 호의적인 것으로 외집단인 여자는 비호의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여성들은 이와 반대로 평가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편애현상은 범주화를 통해 남녀 피험자들이 기능성과 친화성 중 어느 한가지의 가치 준거만을 선호하게 되고 타인의 인상을 평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이 한 쪽 가치나 조망에 구속되어 있을 때는 판단이 평가적이게 되고 남자(여자)는 타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남자(여자)라면 호의적인 인상을, 여자(남자)라면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타인이 속한 남녀 범주가 인상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이지 개인적 특성이 인상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조망이 확대되었을 때는 평가적 감정은 중립화하고 서술차원의 인식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이수원과 박광엽(1989)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복장에 대하여 '질서' 조망을 가진 사람들은 교복에 대하여 호의적

인 반면 사복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성' 조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조망이 확대되어 질서와 개성 조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복과 사복을 평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술차원 즉, 교복과 사복이 얼마나 제복적인가 아니면 비제복적인가에서 판단하였다. 남녀에 대한 인상 판단에서도 조망이 확대되어 기능성과 친화성 두 가지 가치 모두를 고려할 때, 평가적인 인식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녀에 대한 인상을 좋다 -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개인이 얼마나 기능적인지 아니면 친화적인지를 서술하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인상판단 대상의 특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기능적인지 아니면 친화적인지가 문제가 된다. 즉 역할에서 유래한 인상과 개인에서 유래한 인상을 분리하여 타인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타인의 인상은 범주주도적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특성주도적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발달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는 아동의 지각이 범주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발달해가는지를 연령별로 조사하였다. 즉, 대인지각과정에서 아동은 성 범주에 의존하여 인상을 형성하는 반면, 성인은 개인적 정보에 의존하여 인상을 형성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범주 정보에 의해 인상을 형성함으로써, 성인보다 아동은 남녀 성 범주 집단에 관한 차별지각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한편 Biernat(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지식이 증가함으로써,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지를 재검토하였다.

연구 2에서는 본 연구의 가정대로 범주주도적 지각에서 특성주도적 지각으로 발달한다면 그 이유가 조망축소 또는 확대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 중 기능성과

친화성 양쪽 가치나 조망을 모두 수용하는 집단  
을 성 범주 특성의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반  
면 한쪽 가치나 조망 만을 가지거나 무조망 집단을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발달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대인지각수준에서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려 하였다. 즉,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특성 주도적  
지각을 하는 반면, 낮을수록 범주 주도적지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 연구 1

### 방 법

**피험자** 4연령층(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생)  
으로 나뉘어져 피험자들이 표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대학생. 한양대학교 및 한국의국어대학교에 재  
학중인 1-2학년 학생(평균연령: 20.2세) 147명(남  
학생: 104명, 여학생: 4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절차는 타인에 관한 인상형성 연구로 소개된  
설문지에 개인별로 각자의 생각을 평정하도록 하  
였다.

중학생. 서울지역 중학교에 재학중인 1-2학년  
학생(평균연령: 14.5세) 195명(남학생: 95명, 여학  
생: 1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대학원생 2명이  
각 학급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초등학생. 서울 및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평균연령: 10.5세) 224명(남학  
생: 112명, 여학생: 11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학원생의 도움아래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조  
사를 실시하였다.

유치원생.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5개 유치  
원을 대상으로 평균연령 5.6세의 유아 132명(남  
자: 62명, 여자: 7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는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실  
시하였다.

**절차 및 도구** 연령별로 선정된 피험자들 각

각에게 고정관념적인 남성, 여성 및 비고정관념  
적인 남성, 여성들을 제시하고 그들의 인상을 기  
능성과 친화성 차원에서 판단하게 하였다. 자극  
인물은 연령에 따라 대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 인물을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조  
사자가 잘 알고 있는 소년 혹은 소녀라고 묘사하  
게 하여 피험자의 자극인물에 대한 주의집중을  
도왔다.

자극인물을 기술하기 위한 4가지 수준의 특성  
정보는 Biernat(1991)이 사용한 특성유목 즉, 성  
격, 외모, 역할, 직업에 준하였다. 한편 각 유목에  
대한 구체적 속성들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이양(1993)이 조사한 '한글 어휘의 성 경향 및 호  
오도 분석'을 준거로 설정하여 표 1과 같이 구성  
하였다. 여기서 4명의 자극인물은 각각 세가지

표 1. 기술문과 종속변인에서 사용된 성 고정관  
념의 세부 속성들

유 목	남성적 속성	여성적 속성
신체적 특성	단단한 근육 굵은 목 넓은 어깨	부드러운 목소리 보조개 빨간 입술
성격 특성	배짱 있다 거칠다 무뚝뚝하다	얌전 하다 겁이 많다 눈물이 많다
역할(행동)	축구를 잘한다 야구를 잘한다 레슬링을 잘한다	시장을 즐겨본다 아기를 잘 돌본다 요리하기를 즐긴다
직업	군인 비행사 경찰관	간호사 미용사 무용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예컨대,  
성격특성을 가지고 인물을 기술할 때, 고정관념  
적 남성은 '배짱있고 거칠고 무뚝뚝한 남학생'으  
로 표현되었고, 고정관념적 여성은 '얌전하지만

집이 많고 눈물이 많은 여학생'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비고정관념적 남성은 '얕전하지만 집이 많고 눈물이 많은 남학생'으로, 비고정관념적 여성은 '배짱있고 거칠고 무뚝뚝한 여학생'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기술된 자극인물에 대하여 피험자들은 표 1에 나와있는 총 24의 속성에서 자극인물을 기술한 유목에서의 3가지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와 다른 21개 속성차원에서 개연성을 판단하였다. 개연성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2)에서 매우 그럴것 같다(2)까지의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남성적 속성들에 대한 평균 개연성 점수는 기능성 차원의 판단점수로, 여성적 속성들에 대한 평균 개연성 점수는 친화성 차원의 판단점수로 삼았다. 따라서 한 피험자 당 고정관념적인 남성, 여성 및 비고정관념적인 남성, 여성 4 종류의 인물에 대하여 판단한 기능성 및 친화성 차원의 개연성 점수 8개가 산출되었다.

한편 평정에서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교사가 면담을 통하여 그렇다, 아니다의 응답을 먼저 받아낸 후, 양을 표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개연성의 정도를 파악한 후 설문지에 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인상판단에서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대상인물의 평정순서를 무선할당하였다. 연령으로 인하여 인상판단 대상의 인상이 편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령을 전체 표집의 평균연령인 중학교 1학년으로 기술하였다.

## 결 과

### 범주 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주 주도적지각에서 특성 주도적지각으로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우선 표 1에 나와있는 4가지 유목(신체특성, 성격특성, 역할 및 행동, 직업)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상판단 차원인 기능성과 친화성 차원 각각에서 연령(4) \* 인상판단대상 범주 정보집단(2) \* 인상판단대상 특성정보집단(2)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피험자간에 16개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범주정보집단은 인상판단대상의 성이 남자인지 혹은 여자인지에 따라 분류된 집단이다. 반면 특성정보 집단은 인상판단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적 성격(혹은 직업, 역할 및 행동, 외모) 특성이 남성적인지 혹은 여성적인지에 따라 분류된 집단이다.

표 2는 두 판단차원에서 먼저 기능성 차원에 나타난 연령별 범주정보집단(2) \* 특성정보집단(2)의 평균 개연성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판단차원이 기능성 차원일 때, 저연령 집단은 성범주에 의해 판단하는 반면, 고연령 집단은 특성정보에 의해 판단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4) \* 인상판단대상 범주정보집단(2) \* 인상판단대상

표2. 기능성 차원에서 연령별 범주정보집단(2) \* 특성정보집단(2)의 개연성 점수 평균

범주 특성	남자		여자	
	남성적	여성적	남성적	여성적
유치원	3.42	2.79	3.33	2.50
초등	3.24	2.35	2.90	1.89
중등	3.35	2.21	3.13	1.88
대학생	3.41	2.04	3.17	1.78

표3. 친화성 차원에서 연령별 범주정보집단(2) \* 특성정보집단(2)의 개연성 점수 평균

범주 특성	남자		여자	
	남성적	여성적	남성적	여성적
유치원	2.44	2.74	2.85	3.61
초등	2.24	3.06	2.62	3.44
중등	2.27	3.14	2.56	3.31
대학생	2.28	3.40	2.58	3.42

특성정보집단(2)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한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범주 정보 집단 간의 주효과와 특성정보집단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 범주정보를 받은 집단이 여성범주정보를 받은 집단보다 기능성 차원에서 개연성 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 $F(1,682)=53.95, p < .00$ ]. 또한 남성 특성정보를 받은 집단 역시 여성특성정보를 받은 집단보다 개연성 점수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 $F(1,682)=747.16, p < .00$ ]. 이러한 결과는 기능성 차원 판단에서 피험자들이 성범주 정보와 특성정보를 모두 사용하여 대상인물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한편 연령과 특성정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 [ $F(3,682)=11.4, p < .00$ ], 연령이 증가할 수록 더욱 특성정보에 의존하여 대상인물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했던 연령 \* 범

주정보 \* 특성정보 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저연령 집단은 성범주에 의해 판단하는 반면, 고연령 집단은 특성정보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검증되지는 않았다. 친화성 차원에서는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능성 차원에서와 같이 연령별 범주정보집단(2) \* 특성정보집단(2)의 평균 개연성 점수를 산출한 것이 표 3에 제시되었다. 친화성 차원에서 저연령 집단은 성범주에 의해 판단하는 반면, 고연령 집단은 특성정보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능성 차원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 3에 나와있는 점수들을 가지고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주정보집단 간의 주효과 [ $F(1,682)=79.04, p < .00$ ]와 특성정보집단간의 주효과 [ $F(3,682)=430.32, p < .00$ ]가 유의하게 나타나 기능성 차원 판단에서와 같이 피험자들은 전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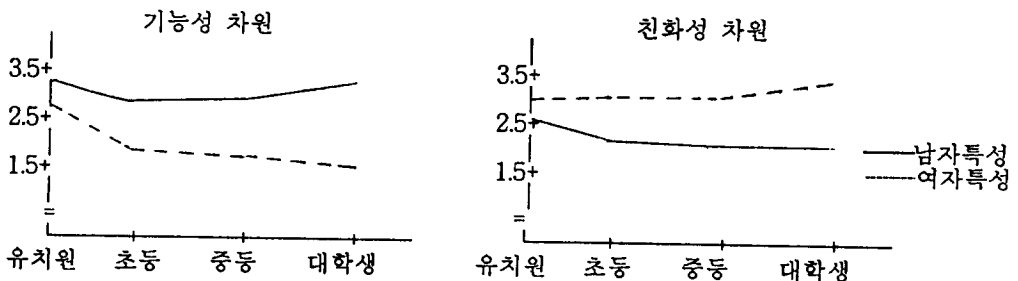


그림 1. 기능성 및 친화성 차원에서 남녀 특성 의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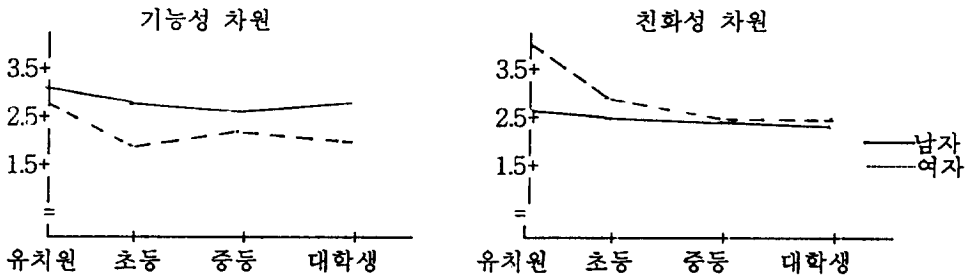


그림 2. 기능성 및 친화성 차원에서 남녀 범주 의존 정도

으로 성범주 정보와 특성정보를 모두 사용하여 대상인물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성 차원과는 달리 연령과 범주정보 [ $F(3,682)=7.27, p < .00$ ] 및 연령과 특성정보 [ $F(3,682)=6.40, p < .00$ ] 간의 2원 상호작용이 각각 유의하게 나타나 대상인물의 판단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주정보에 대한 의존은 감소하는 반면,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연령 \* 범주정보 \* 특성정보 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 $F(3,682)=2.91, p < .05$ ]. 이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대상에 대한 지각이 범주 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런 변량분석결과에 앞서 산출된 집단간 평균표를 근거로 위의 결과들을 요약한 것이 그림 1과 2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상인물판단에서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은 기능성차원과 친화성 차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인물판단에서 범주정보에 대한 의존은 기능성 차원 판단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친화성 차원 판단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연령의 증가에 따라 범주 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발달한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인상판단대상을 기술했던 4가지 유목(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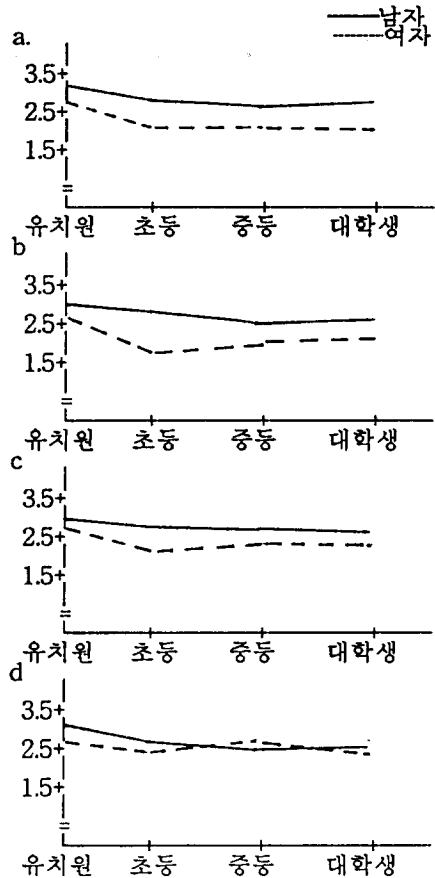


그림 3. 4가지 유목(a:신체특성, b:성격특성, c: 직업, d: 역할 및 행동)에서 기능성 차원의 남녀 범주 의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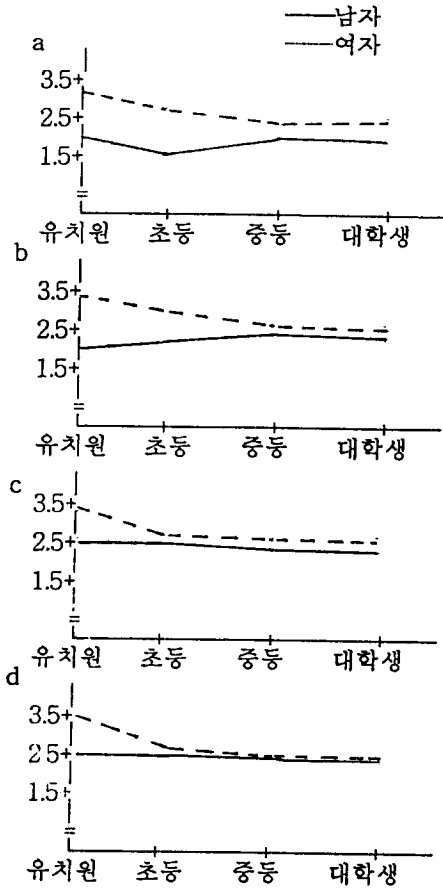


그림 4. 4가지 유목(a:신체특성, b:성격특성, c: 직업, d: 역할 및 행동)에서 친화성 차원의 남녀 범주 의존 정도

체특성, 성격특성, 역할 및 행동, 직업)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유목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연령 \* 범주정보 \* 특성정보 간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앞서 기술한 전반적인 효과와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각 유목에 따라 상이한 결과도 산출되었다. 그림 3은 각 변량분석결과에 앞서 산출되는 집단간 평균표를 근거로 판단차원이 기능성일 때 4가지 유목 각각에서 연령별 남녀 범주정보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4가지 유목 모두에서 범주정보에 대한 의존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량분석결과 범주정보 \*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판단차원이 친화성차원일 때는 대상인물 판단에서 범주정보에 대한 의존이 연령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4가지 유목 모두에서 나타났다. 그림 4는 판단차원이 친화성일 때 연령별 남녀 범주정보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가지 유목 모두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4가지 유목 모두에서 변량분석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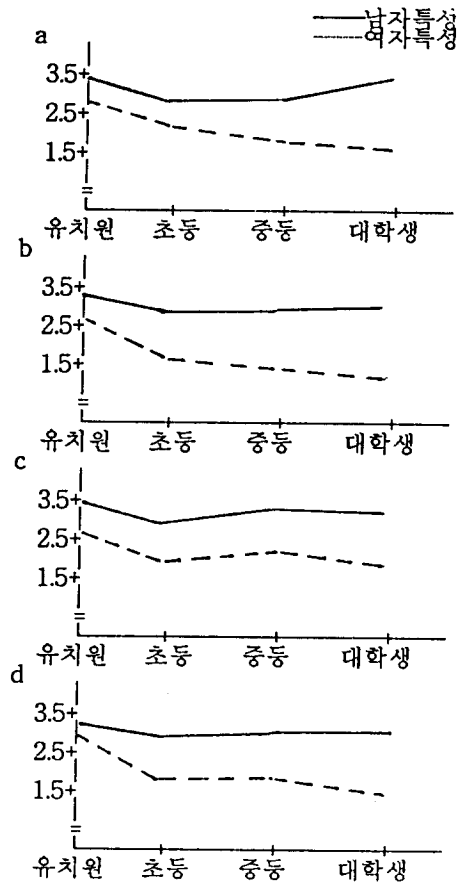


그림 5. 4가지 유목(a:신체특성, b:성격특성, c: 직업, d: 역할 및 행동)에서 기능성 차원의 남녀 특성 의존 정도



특성;  $F(3,685)=5.00, p < .00$ , 성격특성;  $F(3,685)=5.95, p < .00$ , 직업;  $F(3,685)=3.09, p < .05$ , 역할 및 행동;  $F(3,685)=5.77, p < .00$ ].

한편 4가지 유목에서 연령별로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 정도에 대한 분석 역시 기능성차원과 친화성차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5는 판단차원이 기능성일 때 연령별 남녀 특성정보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가지 유목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특성정보 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

났으며 변량분석 결과도 유의하거나 의미있는 경향을 보였다[연령 \* 특성정보의 2원 상호작용 효과: 신체특성;  $F(3,685)=2.26, p < .09$ , 역할 및 행동;  $F(3,685)=3.38, p < .05$ ].

판단차원이 친화성차원일 때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인물 판단에서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이 연령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는 예언이 4가지 유목 중에서 신체적 특성과 성격특성에서만 검증되었다[연령 \* 특성정보의 2원 상호작용 효과: 신체특성;  $F(3,685)=13.78, p < .00$ , 성격특성;  $F(3,685)=5.63, p < .01$ ]. 그러나 대상인물을 직업이나 역할 및 행동을 가지고 기술했을 때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저연령과 고연령 간에 특성의 의존도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남녀 간에 직업이나 역할행동의 구분이 어린 연령에서도 뚜렷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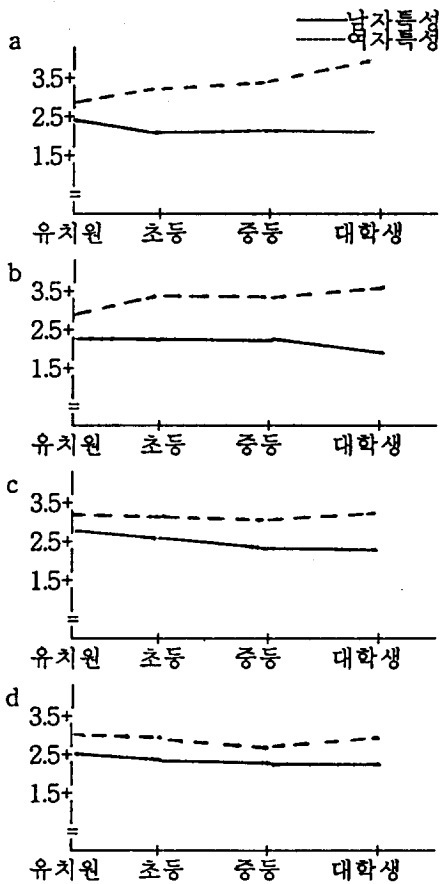


그림 6. 4가지 유목(a:신체특성, b:성격특성, c: 직업, d: 역할 및 행동)에서 친화성 차원의 남녀 특성 의존 정도

### 어린 아동의 성 범주집단 차별지각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특성정보 보다 는 범주정보에 의존하여 인상을 형성함으로써 남녀 성범주 집단, 즉 내외집단 간에 차별적인 지각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상판단대상의 성 범주(2) \* 연령(4) \* 피험자들의 성별(2)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판단차원(2: 기능성, 친화성)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4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변량분석에 앞서 산출된 각 집단간의 평균 점수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기능성 점수와 친화성 점수간의 차이가 인상판단 대상이 내집단의 경우에는 크게 나타나 는 반면 그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에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 먼저 피험자들의 성과 인상판단 대상의 성범주 및 판단차원 간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하

게 나와 [ $F(1,682)=6.68, p < .01$ ], 전반적으로 판단 대상이 내집단일 때는 특성판단차원인 기능성과 친화성에서의 차이가 큰 반면 외집단일때는 그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연령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 $F(3,682)=3.11, p < .05$ ], 본 연구의 예언을 뒷받침 하였다.

특성을 분화하게 됨으로써 기능성과 친화성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알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험자들이 기능성과 친화성 차원에서 반응한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5는 연령별로 기능성과 친화성 차원에서 반응한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표 4. 기능성 및 친화성차원에서 인상판단대상의 성 범주(2) \* 연령(4) \* 성별(2)에 따른 개연성점수 평균

범주	판단차원	남자		여자	
		기능성	친화성	기능성	친화성
유치원	남	3.22	2.56	2.99	3.09
	여	2.98	2.61	2.65	3.50
초등	남	2.84	2.62	2.18	3.09
	여	2.91	2.54	2.50	3.12
중등	남	2.75	2.76	2.52	2.86
	여	2.75	2.70	2.49	3.01
대학생	남	2.69	2.86	2.56	3.01
	여	3.27	2.40	2.12	3.06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피험자 자신이 속한 성범주 대상에 대한 인상은 분화하여 지각하지만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분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저연령에서는 성범주정보에 의존하여 즉, 성고정관념에 입각하여 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외집단의 인상을 분화하지 못하는 반면 성인이 되어서는 성고정관념은 감소되고 특성정보에 대한 지식의 영향으로 인상을 분화하여 지각함으로써 내외집단간의 차별적인 인상을 형성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연령별 기능특성과 친화특성 간의 관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적 특성과 친화적

표 5. 기능성과 친화성간의 상관관계

	기능성 * 친화성
유치원	-.44**
초등	-.52**
중등	-.73**
대학생	-.83**
전체	-.62**

\*\*  $p < .01$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기능성과 친화성 간에 역상관이 크게 나와 두 개념이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 수록 역상관 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성에 의존하여 인상형성이 이

루어지고 지식의 증가나 개념의 획득은 기능적 속성과 친화적 속성을 대립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논 의

앞의 결과에서 친화성 차원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주정보에 대한 의존은 감소하지만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성 차원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 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연령에 따라 범주정보 사용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에서 저 연령의 아동들이 남성특성(기능성) 보다는 여성특성(친화성)에서 성범주에 대한 차별적 지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남성과 여성 범주 구분이 기능성 차원 보다는 친화성 차원에서 더욱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배짱있다고 같은 기능적 특성을 여자가 가질때 보다 부드럽다 같은 친화적 특성을 남자가 가질때 더욱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상판단대상을 기술했던 4가지 유목에서 연령에 따른 범주정보 와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의 차이는 기능성과 친화성 차원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친화성 차원에서는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범주정보에 대한 의존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4가지 유목 모두에서 검증되었다. 그러나 기능성 차원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전반적으로 기능성보다는 친화성에서 범주정보에 대한 연령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령별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 정도는 판단차원이 기능성 일때는 4가지 유목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화성 차원에서는 4가지 유목 중에서 신체특성과 성격특성에서 만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업이나 역할 및 행동을 가지고 대상인물을 기술했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 역시 문화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남녀 간에 직업이나 역할행동의 구분이 어린 연령에서도 뚜렷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기능성과 친화성 차원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두 차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저연령층이 고연령층 보다 인상판단대상이 내집단일 때는 특성판단차원인 기능성과 친화성에서의 차이가 작은 반면 외집단일때는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피험자 자신이 속한 성범주 대상에 대한 인상을 분화하여 지각하지만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분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연구 2

### 방 법

**피험자** 전체 피험자들의 변산성을 고려하여 중학생과 대학생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중학생 피험자는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평균연령, 16세)에 재학중인 남학생 87명과 여학생 89명이 참여하였다. 대학생 피험자는 한양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남학생 129명과 여학생 109명(평균연령, 20.8세)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실험에 참여한 전체 피험자 수는 414명 이다.

**설문자료 및 절차** 개요. 피험자들은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 집단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피험자들의 조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부는 기능성 가치와 친화성 가치가 갈등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가치 선택 상황에서 기능성 가치를 선택한 남학생과 친화성가치를 선택한 여학생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그들의 인상을 기능성 차원과 친화성 차원에게 판단하게 하였

다. 설문지의 후반부는 연구 1에서 사용한 설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판단방법이나 평정 역시 동일하였다.

갈등 시나리오 및 선택상황.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갈등 및 선택상황이 제시되었다.

♥ 원저경의 고민

얼마전 유럽의 한 왕가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그나라의 왕위를 계승받을 왕자인 원저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원저 경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이었고 평민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한편 그는 왕위 계승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결혼 문제를 결정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나라의 법으로는 왕족이 평민과 결혼할 경우에는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고 평생 평민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따라서 원저 경이 그 여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평생 왕이 아닌 평민으로 살아야 한다. 원저 경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관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에 빠졌다. 당신은 원저경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수와 영미의 선택

현재 영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세 남학생이고 영미는 같은 또래의 여학생이다. 같은 씨름활동을 하는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제시된 이야기에 대하여 남학생인 영수는 왕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여학생인 영미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은 이같은 갈등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독립변인 측정. 연구 2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은 피험자들의 조망이다. 피험자들에게 위와같은 갈등 및 선택상황이 주어지고 나서 '한번 당신이 영수(영미)와 만난다고 상상해 보라'고 지시한 후, 의미미분척도 상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

상을 반복측정하였다. 의미미분척도는 정진경(1987)이 남성특성, 여성특성으로 추출한 두 요인, 기능성과 친화성에 따라 이들을 대표하는 인상특성을 이양(1993)의 조사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조망은 기능성과 친화성 두차원으로 제작한 의미미분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기능성에 해당되는 인상으로는 결단력있다 - 결단력없다, 배짱있다 - 배짱없다가, 친화성에 해당되는 인상으로는 부드럽다 - 거칠다, 자상하다 - 무뚝뚝하다가 4개의 의미미분척도의 양극을 규정하였다. 평정은 1에서 7의 7점척도에서 이루어졌으며 평정순서는 피험자 간에서 무선적이 되도록 하여 순서효과를 배제시켰다.

피험자들이 인상판단대상을 어떤 조망을 가지고 판단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반응치들을 가지고 기능성 및 친화성차원에서 변별값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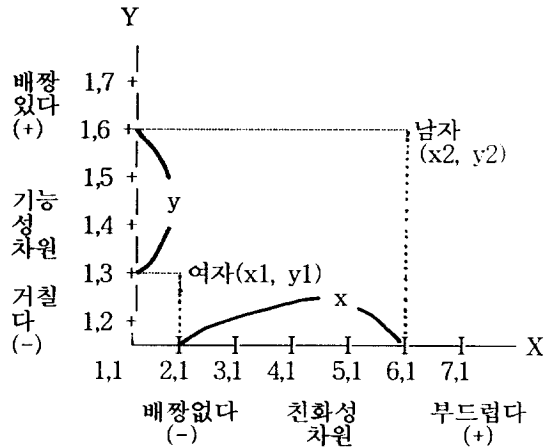


그림 7. 남녀 인상판단의 준거차원

그림 7에서 y는 남녀의 인상이 기능성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친화성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이 클수록 그 가치(기능성, 혹은 친화성)조망을 가지고 남녀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각 준거차원 변별값의 구체적 계산 절차는 이수 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인상판단에서 친화성 보다는 기능성에 가치를 두는 것을 기능성 조망으로, 반대의 경우를 친화성 조망으로, 기능성과 친화성 두 가지 모두에 가치를 두는 것을 확대조망으로, 그 반대의 경우를 무조망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상기한 절차를 통해 산출한 기능성과 친화성의 두 변별값에서 각각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그 분포에서 기능성차원 변별값의 중앙값( $z = -.13$ )과 친화성차원 변별값의 중앙값( $z = .03$ )을 기준으로 기능성가치 변별값은 높고 친화성가치 변별값은 낮은 집단을 기능성 조망 집단으로 그 반대의 경우를 친화성 조망 집단으로, 기능성과 친화성 두 변별값이 모두 높은 집단을 확대조망 집단으로 그리고 두 변별값이 모두 낮은 집단을 무조망 집단으로 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결과, 전체 피험자 중 확대조망 집단에는 126명, 기능성조망 집단에는 81명, 친화성조망 집단에는 62명, 무조망 집단에는 50명이 해당되었다.

중속변인 측정. 연구 2에서 설정한 중속변인으로는 위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4 집단이 얼마나 인상판단에서 남녀를 성범주 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인상을 형성하는지를 보았다. 따라서 측정에 사용된 척도는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판단방법이나 평정 역시 동일하였다.

## 결 과

### 기능성 조망, 친화성 조망 및 성차

본 연구에서는 남자는 친화성 조망 보다는 기능성 조망을 가지는 반면 여자는 기능성 조망 보다는 친화성 조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능성 차원과 친화성 차원에서 산출된 변별값을 가지고 연령(2) \* 성(2)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여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연령 \* 성별 기능성과 친화성차원 변별값

		기능성	친화성
중등	남	-.077	.020
	여	-.316	.180
대학생	남	-.051	-.182
	여	-.061	.051

표 6은 연령 및 성별로 기능성 변별값과 친화성 변별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남자들은 친화성보다 기능성 변별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들은 기능성보다 친화성 변별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결과 성과 판단차원 간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와( $F(1,410)=4.88, p < .05$ ) 이 사실을 뒷바침하였다. 한편 연령 \* 성 \* 판단차원의 3원 상호작용은 의미가 없어 이러한 효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망확대와 특성 주도적 지각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과 친화성 중에서 어느 한 쪽 가치나 조망만을 가지고 인상을 형성하는 집단과 두 가지 조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은 두가지 조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집단에 비하여 인상판단에서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능성이나 친화성 중에서 한쪽 조망만을 가진 집단과 무조망 집단에 비하여 두 조망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확대 조망 집단은 남녀 인상판단에서 개인적 특성에 더욱 의존하여 인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쪽 조망만을 가진 집단과 무조망 집단에 비해 확대조망 집단이 인상판단에서 개인적 특성에 의존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망수준별로 특성 주도적 지각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망수준(4) \* 인상판단대상 범주정보집단(2) \* 인상판단대상 특성정보집단(2)별 인상판단 차원인 기능성과 친화성 차원 각각에서의 개연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7. 기능성 차원에서 조망수준(4) \* 범주정보집단(2) \* 특성정보집단(2)별 개연성 점수 평균

범주 특성	남자		여자	
	남성적	여성적	남성적	여성적
확대조망	4.55	3.02	4.36	3.08
기능성 조망	4.25	3.23	3.92	3.28
친화성 조망	4.60	3.11	4.14	3.43
무 조망	4.26	3.24	4.02	3.35

표 8. 기능성차원에서 조망수준 \* 특성정보집단별 개연성 점수 평균

특성정보	남성적	여성적
확대조망	4.47	3.05
단일조망	4.19	3.25
무조망	4.09	3.28

에 비해 확대조망 집단이 인상을 특성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을 확대조망집단, 단일조망집단, 무조망집단으로 재구성하여 조망수준별 특성정보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8은 조망수준 \* 특성정보집단의 기능성차원에서의 개연성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조망이나 무조망 집단에 비하여 확대조망 집단에서 대상특성에 따른 개연성 점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에 비하여 확대조망집단의 경우 특성정보에 더욱 의존하여 인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변량분석결과, 조망수준별 특성정보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 $F(2,313)=5.54, p < .01$ ], 세 집단을 두 집단씩 개별적으로 비교한 결과, 단일조망과 무조망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확대조망과 단일조망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 $F(1,265)=7.64, p < .01$ ], 본 연구의 예언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조망이나 무조망 집단에 비하여 확대조망집단의 경우 더욱 특성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친화성 차원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능성 차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단별 개연성 점수를 표 9와 같이 산

표 7은 기능성 차원에서 조망수준(4) \* 인상판대상 범주정보집단(2) \* 인상판대상 특성정보집단(2)별 개연성 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이 점수는 연구 1의 표 1에 나와있는 4가지 유목(신체 특성, 성격특성, 역할 및 행동, 직업)에서 나타난 전반적 경향으로서 각 유목에서 반응한 개별 점수들을 평균한 것이다.

표7에 나와있는 점수들을 가지고 조망수준(4) \* 인상판대상 범주정보집단(2) \* 인상판대상 특성정보집단(2)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 한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망수준과 특성정보집단 간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와 [ $F(3,303)=3.69, p < .05$ ], 조망수준에 따라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조망수준과 범주정보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쪽 조망만을 가진 집단과 무조망 집단

표 9. 친화성 차원에서 조망수준(4) \* 범주정보집단(2) \* 특성정보집단(2)별 개연성 점수 평균

범주 특성	남자		여자	
	남성적	여성적	남성적	여성적
확대조망	3.00	4.45	3.31	4.55
기능성 조망	3.11	4.19	3.50	4.50
친화성 조망	2.79	4.59	3.22	4.62
무조망	3.30	4.54	3.24	4.33

표 10. 친화성차원에서 조망수준 \* 특성정보 집단별 개연성 점수 평균

특성정보	남성적	여성적
확대조망	3.13	4.50
단일조망	3.20	4.49
무조망	3.26	4.46

출하였다. 이들 점수를 표 10과 같이 확대조망, 단일조망, 무조망의 세 집단 별로 재구성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능성 차원과는 다르게 조망수준별 특성정보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집단을 두 집단씩 개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조망수준에 따른 특성정보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 친화성 차원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

### 논의

앞의 결과에서 단일조망이나 무조망 집단에 비하여 확대조망 집단이 특성 주도적 지각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기능성 차원의 판단에서 잘 나타났으나, 친화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왜 이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는지는 정확히 규명되지 어렵지만 피험자들의 조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장면으로 제시하였던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이

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즉, 시나리오 상에서 사랑을 버리고 왕관을 선택한 성취지향적 가치(남성적 가치)보다는 왕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친화지향적 가치(여성적 가치)가 더욱 성숙된 가치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 조망집단 보다는 친화성 조망집단이 발달적으로 성숙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표 7, 8에서 볼 수 있듯이 기능성 및 친화성의 두 판단 차원에서 확대조망집단과 친화성조망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성조망 집단과 확대조망집단의 개연성 점수간의 차이는 크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친화성 조망집단이 기능성 조망집단보다 발달적으로 더욱 성숙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친화성 조망 집단은 기능성 보다는 친화성 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화성 차원 판단에서는 특성정보에 의존하여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더라도, 기능성 차원 판단에서는 특성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확대조망, 단일조망, 무 조망의 세 집단 비교에서 판단차원이 기능성일 때는 확대조망과 단일조망 집단간의 특성정보 의존에서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만 판단차원이 친화성일 때는 이 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기능성차원에서는 조망수준별로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 효과를 산출한 반면,

친화성차원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산출하지 않은 원인을 시나리오 구성에서 기능적 가치(왕관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친화적 가치(사랑을 선택하는 것)가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기능적 가치보다는 친화적 가치가 부각되는가? 이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갈등 상황에서 두 가치가 발달적으로 위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즉, 기능적 가치 선택 보다는 친화적 가치 선택에 기초한 판단이 더욱 발달적으로 성숙한 판단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단일조망 집단이라도 기능성 조망집단 보다는 친화성 조망집단이 발달수준에서 상위의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 2에서는 특성정보 사용에 대한 발달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별 조망 수준과 연령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령별 특성정보에 대한 의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을 합쳐서 조망수준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령별로 발달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피험자들의 판단과제에서 발달적인 차이를 벗어내는데 중등학생(평균 연령, 16세)과 대학생(평균 20.8세)이 연령상 차이가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학생들은 과제 수행에 충실한 반면 대학생 집단은 잘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달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변수로 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으며 실제 분석에서도 연령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에서 범주 주도적 지각과 특성 주도적 지각의 수준의 차이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발달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주 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인이라도 타인의 인상을 범주 주도적으로 처리하느냐 혹은

특성 주도적으로 처리하느냐는 개인의 특성 개념의 발달수준 및 조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결과, 연구 1에서는 대인지각이 범주 주도적지각에서 특성 주도적지각으로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기능성과 친화성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적, 여성적 특성 개념이 서로 이원적(dual)인 것에서 대립적(bipolar)인 것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범주 주도적에서 특성 주도적지각으로의 발달은 개인의 조망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 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특성 개념의 발달 수준이 낮은 무조망이나 단일조망집단은 특성 개념의 발달 수준이 높은 확대조망집단에 비하여 개인적 특성지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판단에서 개인의 조망 수준에 따라 인상정보 처리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를 통하여 성인과 아동이 인상정보처리의 수준이 다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해졌다. 성 역할 발달에 대하여 도식이론이나 인지 발달이론(Kohlberg, 1966)에서도 사회적 세계를 범주화하는 한 차원으로서 성 범주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성에 기초하는 편파된 지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취급되어 왔다. 예컨대, 성역할 경험을 통하여 획득된 도식에 대한 인지적 일관성이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동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적 범주를 가치롭다고 생각하거나 그 범주에 속한 성원들을 편애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Powlisha(1995)는 어린 연령에서 성 범주화에 따른 내외집단 간의 차별현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아동이 사회적 범주화로 인한 왜곡된 지각으로 인하여 내집단 편애가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내외집단에 대한 인상을 내집단 성원의 경우에는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다양



성이 없고 동질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왜곡된 지각현상은 사회심리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Brewer & Kramer, 1985; Messick & Mackie, 1989; Tajfel, 1982; Wilder, 1984).

본 연구에서도 피험자들이 내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기능적 특성과 친화적 특성을 잘 분화하여 판단하지만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그 두 특성을 잘 분화하지 못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집단 성원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고 동질적인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내외집단 차별지각 현상을 밝혀왔던 연구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성인에 비하여 아동에게서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이나 인지발달 이론가들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들은 내외집단 간의 차별현상이 아동과 성인에서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성인과 아동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내외집단 간의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만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의 고양이나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적인 설명은 성인과 아동의 발달적 차이나 그 과정에 작용하는 인지적 기제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아동과 성인을 비교했을 때는 왜 이러한 차이가 산출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아동과 성인의 인지 구조상의 발달적 차이에서 비쳐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조망의 수준에서 아동은 조망이 축소되어 있는 반면 성인은 조망

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왜냐하면 조망의 축소나 확대가 인상정보에 대한 처리 수준을 범주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성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범주 주도적으로 타인의 인상을 처리할 때는 내외집단간 차별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반면 특성 주도적으로 처리할 때는 이러한 차별현상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인상을 특성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범주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개인이 특정 역할관계에 맥락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역할맥락화란 특정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개인의 인상을 다른 역할 관계에도 일반화 시키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때는 그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타인의 역할 특성을 개인적 성격으로 보게 된다. 즉, 역할 특성과 개인의 성격 특성을 분리하여 지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인상을 개인적 특성 정보보다는 범주 정보에 의존하여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상을 처리할 때 개인의 판단에서 사용하는 특성은 의사개념(pseudo-concept)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 타인을 기술하는 특성은 역할특성이지만 개인의 성격특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역할특성을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착각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역할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타인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지각자가 역할과 개인을 분리하여 지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타인을 기술하는 특성에 대한 진개념(true-concept)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타인을 범주 주도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에서 특성 주도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각자가 타인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특성 개념이 의사개념에서 진개념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추론에서 볼 때 남성 및 여성의 특성 개념에 대해서도 그 개념이 발달되었을 때, 특성 주도적 지각을 하는 반면, 개념이 미발달되

있을 때 범주 주도적 지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망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발달 양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을 뿐 직접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범주 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개념의 발달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은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분화수준을 측정하여 대인지각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차후 진행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 문헌

- 김태준, 이수원(1994). 감정적 처리에서 인지적 처리로: 내/외집단 성원의 재범주화 및 탈범주화 효과. *한양대학교 한국 교육문제 연구소 교육논총*, 제 7권, 43-72.
- 이수원, 김태준(1988). 조망과 태도: 태도의 변형 생성모형. *한국심리학회지*, 7권, 2호, 75-95.
- 이수원, 박광엽(1989). 조망의 확대와 평가의 보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권, 2호, 33-49.
- 이수원, 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연구*, 4권, 1호, 155-181.
- 이 양(1993). 한글 어휘의 성 경향 및 호오도 분석. 미간행자료,
- 이혜경, 이수원(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권, 2호 108-123.
-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 여성학*, 3권, 132-160.
- Biernat, M.(1991). Gender Stereotyp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sculinity and Femininity: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51-365.
- Brewer, M. B.(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R. S. Wyer & T. K. Srull(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Vol. 1, pp. 1-36). Hillsdale, NJ: Erlbaum.
- Brewer, M. B., & Kramer, R. M. (1985).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219-243.
- Fiske, S. T., Neuberg, S. L.(1988). A continuum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on processes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motivation, and atten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1-74.
- Hundeide, K.(1985). The tacit background of children's judgements. In J.V. Wertsch(Ed.), *Cultur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Vygotskian perspectives*. Cambridge Univ. Press.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 Martin, C. L.(1989). Children's use of gender-related information in making social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80-88.
- Messick, D. M., & Mackie, D. M. (1989).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0, 45-81.
- Piaget, J.(1928). *Judge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owlishta, K. K.(1995). Intergroup Processes in Childhood: Social Categrization and Sex Rol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1*, 781-788.
- Sherman, R. C.(1988). Are Two Modes Better Than One? A Critipue of Brewer's Dual Process Model. In R. S. Wyer & T. K. Srull(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Vol. 1)*. Hillsdale, NJ: Erlbaum.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Wilder, D. A. (1984). Predictions of belief homogeneity and similarity following social catego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323-333.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In M. Cole et al. (Ed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6. Vol.9, No.2, 30-49.

## **Gender Role Perception Development : From Category-based perception To Trait-based perception**

**Tae-jun Kim**

Department of Education  
Han 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evelopmental relationship between category-based perception and trait-based perception in person perception. It was hypothesized that developmental shift may occur from category-based perception to trait-based perception. Two studies were performed. In study 1, interviews/surveys of kindergartners, 3rd-4th graders, 7th-8th graders, and college students were conducted, in which Ss were presented with descriptions of boys or girls with stereotypical or counterstereotypical attributes and asked to judge other characteristics these boys or girls might have. The data indicated that a) use of individuating information increases with age, but gender label decreases with age b) intergroup discrimination decreases with age, and c) the relationship between masculinity and femininity becomes increasingly negative with age, suggesting that gender may initially be viewed in dualistic terms but later as a unidimensional construct. In study 2, it was hypothesized that development to trait-based perception may be related to individual's perspective level. To test the hypothesis, a conflict situation that agentic value contrasted to communal value was presented, and was judged in agentic and communal dimension. The measures were criteria to categorize perspective expansion, perspective contraction, and non-perspective group. As a result, the hypothesis was partially supported that perspective expansion group more used individual trait informations than perspective contraction, no-perspective group. Thus it was discussed on the gender perception development.